



문화방송(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사측과 계약 갱신권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아나운서들은 부당하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MBC는 이들이 계약 갱신 기대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3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하고 구제 제삼판정 취소소송 1차변론을 진행했다. 2016·2017사번으로 입사한 이들의 소송 접점은 1년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한 이들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느냐.

이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대리인은 "참가인들은 MBC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초과 즉시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된다"며 "또 아나운서들은 채용 당시 치른 시험은 일반 정규직 아나운서 시험과 동일한 절차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6~2017년 당시 부서의 실질적 인사권한자인 아나운서국 국장과 부장이 정규직 전환 보장을 수차례 말했다"며 "방송문화진흥회 회의록을 봐도 부사장이 '아나운서들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될 것'이라고 말한 회의록도 있다"고 했다.

아나운서 대리인은 "MBC는 채용 당시 아나운서국의 인력이 임시적으로 필요했다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보통 40~50명이던 인력이

MBC 계약 아나운서 법정공방

아나운서 측 "국장 등 정규직 전환 보장 언급"

문화방송 측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요건 없어"

30대 초반으로 운영돼 있었다"며 "2011~2012년과 비교해도 10여명이 복귀해도 8명 정도가 부족했다. 한시적 채용이 필요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아나운서들은 1천 700대 몇이란 공채와 유사한 수준을 뚫고 합격했다"며 "그런데 회사는 다시 이 인력을 불특정 1천900명 속에 넣어 한명만(재)채용했고 이는 부당하다"고 했다.

반면 MBC측 대리인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 어디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 갱신을 해준다는 요건이 없다"며 "또 계약 갱신 기대권을 부여한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간제법 시행 이후 단 한번 갱신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본인들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2016년 계약직 아나운서 채용 당시 인력 부족 상황이었지만 당시 전보된 아나운서들의 복귀 가능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채용됐다는

특수상황이 있다"며 "따라서 참가인들은 대체 인력이었고 한시적 인력 운용 방안에 따라 채용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근무조건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 없이 대했던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대우금지 조항을 준수한 것인지 그 자체로 갱신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MBC는 파업 중이던 2016년과 2017년 총 11명을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았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특별채용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지난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16·17사번 아나운서 9명은 201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하고 구제신청을 냈고 모두 승소했다. 그러자 MBC 경영진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지난달 21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하고 구제 제삼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 때 당사자인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계약직으로 채용됐는데 계약갱신을 통해 MBC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중 2017년 12월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이를 부당하고라고 판단했다. 뉴스

영화 '김복동' 5일 만에 관객 3만명 ↑

적은 상영관·상영횟수에도 호성적

영화 '김복동'이 개봉 다섯 만에 관객 3만명을 넘어섰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김복동'(감독 송원근)은 12일 기준 3만3천244명이 관람했다. 8일 개봉 이후 5일 만의 기록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상영관(666관)과 상영횟수(2천 600회)를 감안하면 대단한 실적이다.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의 호응은 뜨겁다. 포털사이트 관람객 평점 10점, CGV 골든에그지수 전세대 99%라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관객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도 더 듣고, 또 듣자, 다시 듣고, 계속 듣자" "나의 무지함에 서러워서 울게 되는 영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변영주 감독은 "일제강점기 때 피해를 보신 불쌍한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기 전에 안다고 말하지 마라. 용기의 영화, 꼭 극장에서 보라"고 추천하기도 했다.

영화 '김복동'은 여성인권운동가이자 평화운동가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1992년부터 올해 1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투쟁한 27년간의 여정을 담은 김복동 다큐멘터리다. 상영 수익 전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쓰인다. 뉴스

김동완, 영화 '소리꾼' 출연...판소리패 '일당' 역

"조정래 감독 의미있는 작품 영광"

가수 겸 배우 김동완(40)이 영화 '소리꾼'에 출연한다.

김동완의 소속사 오피스DH는 "김동완은 판소리패 '일당' 역을 맡는다. 소리꾼들이 조선에서 살며 겪은 한을 해소하는 과정을 그린다. 수탈에 의해 피해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길 위에서 만난 동료들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리꾼'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판소리 사극 영화다. 신분이 천민인 소리꾼들이 조선팔도를 떠돌며 겪는 설움과 아픔을 표현한다.

김동완은 "조정래 감독님의 의미 있는 작품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다"고 밝혔다. 김동완은 소리와 고법(판소리의 북치는 법), 서예를 배우며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김동완은 2004년 영화 '돌려차기'로 스크린에 데뷔했다. 이후 '연가시' '일장춘몽' '어떤 이의 꿈' '시선 사이' 등의 영화에 출연했다. '소리꾼'은 그의 첫 사극물이다. 영화 '귀향'을 연출한 조정래(46) 감독의 신작 '소리꾼'은 9월 크랭크 인하며, 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이다. 뉴스

TV프로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10 내고향 스페셜 6:00 KBS 뉴스광장	5:00 숨터 5:05 걸어서 세계속으로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5:00 UHD 세상탐험 6:00 뉴스투데이 1·2부 7:20 광주MBC 뉴스투데이 7:50 모두 다 콩파리	5:00 상상! 고향별곡 5:55 닥터 365 6:00 모닝와이드 1·2부 7:35 KBC 모닝 730 8:30 닥터 365 8:35 수상한 창모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20 KBC 생활뉴스 10:30 살맛 나는 오늘 11:00 애나갤러리 11:30 방학특집 안영 자두야 언더 더 씨
7:50 인간극장 8:25 광복절 기획 아침마당 9:30 KBS 뉴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아 부탁해 9:40 그녀들의 여유만만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8:30 닥터 365 8:35 수상한 창모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20 KBC 생활뉴스 10:30 살맛 나는 오늘 11:00 애나갤러리 11:30 방학특집 안영 자두야 언더 더 씨
10:00 무엇이트 물어보세요 11:00 중계방송 제2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1:40 팔도밥상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저스티스	10:45 신입사관 구해령	
12:00 KBS 뉴스 12 1:00 제16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 2:50 전국노래자랑	1: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2:00 KBS 뉴스타임 2:10 생활의 발견	12:00 12MBC 뉴스 12:20 신입사관 구해령 1: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1:50 2시 뉴스외전	12:00 SBS 12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50 지식홍조림-교육시리즈 12:55 테마스페셜 1:55 닥터 365
4:00 사사건건	3:00 자동공부책상 위기2 3:30 TV 유치원	3:20 에어로빅 3:50 빠샤메카드 4:20 모두 다 콩파리 5:00 5MBC 뉴스 5:25 최충우들 만국 유랑기	2:00 뉴스브리핑 4:00 SBS 스페셜 5:00 SBS 오뉴스 5:45 KBC 저녁뉴스
5:00 KBS 뉴스 5 5:30 전국을 달린다 5:40 남도 지오그래피	4:00 그녀들의 여유만만 5:00 반지의 비밀일기 2 5:15 셋 내 친구는 빅파이브 5: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6:00 6시 내고향 7:00 뉴스 7 7:40 미나디Q	6:00 KBS 경제타임 6:30 2TV 생생정보 7:50 태양의 계절	6:25 오매 전라도 7:30 뉴스데스크 8:55 신입사관 구해령	6:00 백종원의 골목식당 7:00 법률365 7:05 생방송 TV블로그 품자락
8: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8:30 여름아 부탁해 9:00 KBS 뉴스 9	8:30 글로벌24 8:55 살림하는 남자들 10:00 저스티스 11:10 썬바이벌 1+1	10:05 살맛나는 세상 11:05 라디오스타 12:40 스포츠 다이어리 12:5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8:00 SBS 8뉴스 8:35 KBC 8뉴스 8:55 영재발굴단 10:00 닥터탐정
10:00 시사토크 '10' 10:55 오늘밤 김제동 11:35 숨터 11:40 광복절기획 KBS 스페셜 12:35 KBS 뉴스 12:45 인간극장 스페셜 ※1:55 KBS 중계식	12:30 스포츠 하이라이트 12:55 TV는 사랑을 싣고 ※1:50 재난방송센터		11: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30 나이트라인 ※1:00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 연해주에 남겨진 별들

EBS1

6:00 한국기행 6:20 세계테마기행 7:00 로보카 폴리 7:15 꼬마버스 타요 7:30 뽀롱뽀롱 뽀로로 7:45 페파 피그 8:00 당동영 유치원1 8:10 두근두근 방방 8:20 당동영 유치원2 8:30 몬카터 8:45 최고대 호기심딱지 시즌4 9:00 마사와곰 9:15 출동 슈퍼왕스 9:30 원더볼즈	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스페셜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초대석 13:00 지식채널e (1,2)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4:30 꼬마버스 타요 14:45 로보카 폴리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15:30 뽀롱뽀롱 뽀로로 15:45 출동 슈퍼왕스	16:00 최고대 호기심딱지 시즌4 16:15 세미와 매직큐브 16:30 당동영 유치원1 16:40 두근두근 방방 16:50 당동영 유치원2 17:00 EBS 뉴스 17:20 명탐정 피트 17:30 페파 피그 17:45 마사와곰 18:00 생방송 토틀톡! 보니 하니 18:05 생방송 토틀톡! 보니 하니2 18:20 생방송 토틀톡! 보니 하니3 18:25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18:40 생방송 토틀톡! 보니 하니4
--	--	--

오늘의 운세 양력 8월 14일 수요일 (음력 7월 14일) 구박사인생클리닉 원장 구홍덕 박사

36년생 자녀, 형제들로 인한 근심 운이 따른다. 48년생 이상으로 인한 근심수가 있으나. 60년생 내가 먼저 한 말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라. 72년생 맛있는 것부터 먹으라. 84년생 아등, 이사, 변동 운이 있다. 96년생 그동안의 연구결과가 결실을 맺는다.	30년생 지금 당장 건강진단을 받아 보라. 42년생 속 상할 것이니 과거를 묻지 말라. 54년생 자녀의 이성교제에 청신호. 66년생 불씨를 사전에 잘라버리라. 78년생 그간의 공이 이제야 빛을 보리라. 90년생 자동차의 안전점검 필수 할 것.
37년생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 49년생 가족들을 생각하여 참으라. 61년생 하나가 가면 반드시 둘이 온다. 73년생 원숙한 일 처리가 기대된다. 85년생 식구가 불어날 좋은 운이라. 97년생 부모님과 상의해 보라.	31년생 솔직하게 털어놓고 협조를 구하라. 43년생 친구 것에 눈독들이지 말라. 55년생 친구와 의논하면 길이 보이라. 67년생 어차피 잊을 건 빨리 잊으라. 79년생 나의 과욕은 눈을 멀게 한다. 91년생 은혜는 반드시 기억해 두라.
38년생 일단 나의 능력을 보이라. 50년생 나도 베풀 때가 되었음이라. 62년생 자녀로 인한 경사 운이 있다. 74년생 친구들의 인정을 받는 운이라. 86년생 매사에 성실히 임하면 반드시 승산이 있다. 98년생 오히려 손해 보리니 허세를 부리지 말라.	32년생 내가 죽는다 한들 누가 알아 주리. 44년생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56년생 형편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68년생 부부화합이 되는 좋은 운이라. 80년생 보는 것보다는 만져보고 결정하라. 92년생 절대 표시 내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라.
27년생 과거에 배고픈 시절을 생각하라. 39년생 혼자 자서는 외로우니 단결하라. 51년생 친구들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운이라. 63년생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이라. 75년생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질을 높이라. 87년생 돈보다 명예를 중시할 것이라.	33년생 이것도 복이려니 생각하라. 45년생 내 책임이 절반이라는 것을 알라. 57년생 나의 속사정을 누가 알라. 69년생 실망하지 말라 좋은 일이 곧 오리니. 81년생 똥 묻은 개가 어찌 겨 묻은 개를... 93년생 자신의 주특기를 살리라.
28년생 지금 당장 당신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40년생 친구에게 보낸 서신에 대한 답이 없다. 52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64년생 그것은 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76년생 내 것, 내 것 따지지 말고 처리하라. 88년생 친구를 택하는 것이 우선이다.	34년생 속은 썬 치고 건네 주라. 46년생 오랜만에 울음이 두둑해진다. 58년생 젊은 날을 회상하며 눈물을 짓는다. 70년생 재산증식의 기회, 전력투구하라. 82년생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 말라. 94년생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29년생 그것은 과하니 조금 줄라. 41년생 소비를 줄여야만 살아 남는다. 53년생 자녀의 말을 100% 들어 주라. 65년생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말 것. 77년생 수표를 믿어서는 안 된다. 89년생 지금까지 해 놓은 일은 헛수고다.	35년생 내 잘못이 크다는 것을 자각하라. 47년생 한 말 양보하고 일단 잠어 두라. 59년생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줄 생각을 말라. 71년생 친구를 진심으로 사귀라. 83년생 지난 날의 죄를 참회한다. 95년생 내 공이 아니니 돌려 주라.